



# 정교회주보

제2497호

2024.11.03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세계의 정교회 수도원> 오스트로그 수도원(사진)은 몬테네그로 지역의 가파르고 거대한 바위 높은 곳에 세워진 세르비아 정교회 수도원이다. 17세기 초에 설립되었으며 오스트로그의 바실 성인 이름으로 봉헌되었다. 1923~1926년의 화재로 큰 피해를 보았으나 재건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순례자가 세계 각지에서 찾아올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 루가 제5주일

성 아겍시마, 성 요셉,  
성 아이탈라 순교자들  
(제2조 • 조과복음 8)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2조 부활 찬양송 ..... 81
  - 순교자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 사도경 : 고린토후 11,31~12,9 (봉)279
  - 복음경 : 루가 16,19~31 ..... 125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그대는 골고타에 있었는가?

**수**난 받으시기 전,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눈을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요한 17,1) 예수님은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하느님 뜻의 성취는 때를 정확히 기다릴 것을 요구합니다. 늦는 것도 이른 것도 다 배제됩니다.

게세마니의 고통 중에, 한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에게 힘을 줍니다.(루가22,43) 그것은 고통의 잔이 구세주를 피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예수님에게 힘을 줍니다. 이렇게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 잔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넘겨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정교회출판사] 중에서

#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영혼과 육신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하느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생기는 질병과 나약함을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마귀로부터 오는 영육간의 고통과 질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이시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마귀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게라사인들 지방으로 가셔서 배에서 내리시자 옷도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도 아닌 무덤에서 지내는 마귀 들린 사람이 주님께 마주 왔다. 그는 마귀에 사로잡혀 쇠사슬과 족쇄로 묶여 감시를 받았으나 묶은 것을 끊고 마귀에게 물려 광야로 나가곤 하였다. ...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에게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시자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고, 마귀들이 떨어져 나간 그 사람은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주님 발치에 앉아있었다.”(루가 8,27-35 참조)

구약성서에 나오는 옴은 흠 없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동방인들 가운데 가장 부자이고 아들이 일곱이고 딸이 셋이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탄은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시험해 보고 싶었다.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를 허락하시면서 그의 목숨은 손대지 말라고 하셨다. 사탄은 먼저 옴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알몸으로 만든 다음 그의 자녀들도 집이 무너져 모두 죽게 만들었다. 이러한 불행이 연속적으로 생김에도 불구하고 옴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자 옴에게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심한 부스럼을 나게 하여 질그릇 조각으로 제 몸 곪을 정도의 극한 고통을 주며 그를 괴롭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옴은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전혀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참회하며 주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서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옴 42,2) 이러한 옴의 믿음을 보신 주님은 그에게 다시 축복을 내리시어 전에 소유했던 것을 갑절로 더해 보상해 주셨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병들게 하고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마귀의 괴롭힘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거두어들이시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다. 따라서 나의 삶과 죽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영적 성장을 위한 조언 7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 천국은 회개하는 죄인들로 가득차 있다

**나**의 친애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천국은 죄 없는 이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죄인들을 위한 곳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죄인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열려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을 향해서 첫걸음을 떼는 것으로 충분한데, 그것은 바로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열 걸음으로 달려오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열렬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희에게 참된 회개의 눈물을 주소서. 많은 슬픔 속에서도 당신은 저희들의 기쁨이십니다. 아주 많은 죄들 속에서도 당신은 저희의 구원이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당신은 평화이십니다. 주여, 당신께서 오래 참으신 것과 관용을 베풀어주신 것에 대해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 에프렘 원로 사제 (1928-2019,  
미국 애리조나주 성 안토니오스 수도원 설립자)



**한** 번은 어떤 수도자가 이런 질문을 받았 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느님에게서 무엇을 얻나요?”

그러자 그 수도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만 그래도 얻는 것 대신, 제가 실제로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걸핏하면 화를 내는 성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저의 이기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셋째, 저의 탐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넷째, 돈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섯째, 사악함과 다른 사람, 사물에 대한 선망(羨望)과 질시(嫉視)를 잃어버렸습니다.

여섯째, 낙담과 실의(失意), 우울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끝으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 제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아주 값진 선물들입니다.”

## 주간 예배 안내

- \* 11월 8일(금)  
성 미하엘, 성 가브리엘 대천사와 천상의 모든 천사들
- \* 11월 9일(토)  
성 넥타리오스 대주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알림

### 장신대 학생들이 서울 성당 방문

지난 26일(토), 아침 성찬예배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서원모 교수와 대학원생 약 30명이 참례하였습니다. 예배 후에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 서울 성당 결혼성사

지난 주일(27일), 성찬예배 후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집전으로 루가 스클라부노스 & 카테리나 쿠세니디의 결혼성사가 거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리스 출신으로, 결혼성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성사가 끝난 후에는, 성당 마당에서 신데즈모스 회원들과 같이 축하 파티를 가졌습니다.

### 부산 성당 유아 세례성사

지난 25일(금),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의 집전으로 소피아 김민서 유아가 세례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정교인으로서 영적 삶을 새롭게 잘 해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 울산 성당 가을 야유회

지난 주일(27일), 성찬예배 후에 울산대공원으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준비해간 음식을 나누며 교인들이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공원의 숲길을 함께 걸으면서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준비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영성의 샘터

## 먼저 용서를 구하면...

시리아의 에프렘 성인은 말한다.

“만약 두 형제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이가 승리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그가 상대 형제를 무시하지 않고 기꺼이 나서서 화해하고자 한다면, 상대 형제도 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